

BASIC BIBLE TEACHING # 7

THE LIFE OF JESUS

① Jesus Christ is a very special person. He is the only Son of God. But he was born into a very poor and humble family. His foster father, Joseph, was a carpenter in a little village. As Jesus grew up he learned to be a carpenter and all thought that he would work like Joseph.

② His family recognized that Jesus was different. He spent a lot of time reading and talking about the Bible, the Word of God. He was never dishonest or hurtful or unkind. He grew up in this way.

Luke 2:52

'And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ur with God and men

③ By the time Jesus was 12 years old he had decided to dedicate his life to God. He told his parents of this decision

④ His brothers and sisters saw that Jesus was different from them and his half brother, James, wrote these words about him

James 3:17

'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is first of all pure; then peace-loving, considerate, submissive,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impartial and sincere.'

⑤ This is the wisdom mentioned in the other Bible quotation we have looked at in Luke chapter 2. James tells us about the boy who grew up in the same home as he did. He tells us that the character of Jesus was different to ours.

⑥ Jesus shows us the wisdom which comes from God. His character was like that of his father, God

성서의 기초 제 7과

예수의 생애

예수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러나 그는 매우 가난하고 초라한 집안에서 출생했다. 그의 양아버지인 요셉은 작은 마을의 목수였다. 그는 자라는 동안 목수의 일을 배웠고 모든 사람들은 그가 요셉과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그의 가족은 예수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대해 읽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결코 부정직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불친절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성장했다.

누가복음 2: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12 살이 될 무렵, 예수는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결심을 그의 부모에게 말했다

그의 형제, 자매들은 그가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이부(異父)형제인 야고보는 예수에 관해 이렇게 썼다

야고보서 3:17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2 장에서 보았던 다른 성서인용에서 언급된 그 지혜이다. 야고보는 자신과 같은 집에서 성장했던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와는 다른 예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보여준다. 그의 성품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himself. Jesus showed men and women what God was like by the way he lived

⑦ When Jesus was 30 years old he left home. For the next three and a half years he traveled throughout Israel. He talked to men and women about God and the salvation God had promised them. He told them that he was sent to save them. He asked them to believe him. Those who believed and followed him were called disciples.

⑧ From the disciples he chose twelve men to be with him and to help him with his work. These men were called apostles. He sent them out to tell people about his message of salvation, which is called 'the Gospel'. This is a word which simply means 'Good News'. Jesus taught people in many ways. Sometimes he spoke to them words which were unlike the teaching of any other man.

Mark 1:21-22

They went to Capernaum, and when the Sabbath came,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and began to teach.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⑨ God gave Jesu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o help him in his work. God had given it to other men before in small amounts to work for him. Jesus was the only man who was given unlimited power. He used it only to do those things which pleased God.

John 5:19-21

Jesus gave them this answer: "I tell you the truth, the Son can do nothing by himself; he can do only what he sees his Father doing, because whatever the Father does the Son also does.

것과 같다. 예수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는 30 세가 되자 집을 떠났다. 3 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여행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셨다. 그를 믿고 따랐던 자들은 제자라고 불리었다

예수는 제자들 중 그와 함께하며 그의 일을 도와줄 12 명을 택했다.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한다. 그는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사도들을 보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단순한 뜻을 가진 말이다. 예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 때때로 그는 사람의 가르침과는 다른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1:21-22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의 일을 돕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전에 그를 위해 일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은 양의 성령의 힘을 주셨다. 무한한 능력을 받았던 사람은 오직 예수 뿐이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에만 이것을 사용했다

요한복음 5:19-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For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shows him all he does. Yes, to your amazement he will show him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For just as the Father raises the dead and gives them life, even so the Son gives life to whom he is pleased to give it.'

¹⁰ Jesus did many wonderful things with the Holy Spirit power. The Bible calls them miracles. Sometimes Jesus even raised people from the dead and gave them life again.

Luke 5:18-25

'Some men came carrying a paralytic on a mat and tried to take him into the house to lay him before Jesus. When they could not find a way to do this because of the crowd, they went up on the roof and lowered him on his mat through the tiles into the middle of the crowd, right in front of Jesus.'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Friend, your sins are forgiven."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began thinking to themselves, "Who is this fellow who speaks blasphemy?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Jesus knew what they were thinking and asked,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in your hearts? Which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and walk'?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He said to the paralysed man, "I tell you,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Immediately he stood up in front of them, took what he had been lying on and went home praising God.'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여,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어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예수는 성령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다. 성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때때로 예수는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일으키셔서 다시 생명을 주셨다.

누가복음 5:18-25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대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환자를 침대에 누인 채, 예수 앞 한가운데로 달아 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편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침대를 거두어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¹¹ The teaching and healing of Jesus was to show that he had the power and authority from God to forgive sins.

¹² How sad it was that Israel would not listen to him. They did not love him as their savior. They were not interested in his teaching. They only wanted him to make life easy for them by miracles, which fed them or cured their disease. Jesus had a message for these people.

John 6:26-29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miraculous signs but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but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On him God the Father has placed his seal of approval."

Then they asked him,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Jesus answered,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¹³ At other times Jesus taught people by parables. These are stories with hidden meanings. They are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how we must prepare ourselves for it. Here is one parable Jesus taught.

Matthew 13:45-46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erchant looking for fine pearls. When he found one of great value, he went away and sold everything he had and bought it.'

¹⁴ From this parable Jesus wanted people to understand that the kingdom of God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life. When we find

예수의 가르침과 치유하심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죄사함의 능력과 권한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서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그가 그들을 먹이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여 그들이 편히 살게 해주기를 원했다. 예수는 이들을 위한 메세지를 전했다.

요한복음 6:26-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때에는,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숨겨진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예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 예수가 가르치신 비유가 하나 있다.

마태복음 13:45-46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기 원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out about it, we have to put it first. It is the most precious thing we can have.

¹⁵ Jesus used all his strength and energy in preaching the Gospel. When he died, he was still a young man, but he looked much older. This was because of all the hard work he had done for God. He was able to say to God when he talked to him in a prayer;

John 17:4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complet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¹⁶ Jesus had told men and women everything about God. He taught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which will come on the earth. They were not interested in his teaching and finally they killed him. We shall learn about his death in the next lesson.

Questions

1. How was Jesus different to other people?
2. Who were the apostles?
3. Why was Jesus give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4. What did Jesus do when he was 30 years old?
5. What are miracles?
6. What are parables?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예수는 그의 모든 능력과 힘을 복음 전파하는 것에 사용했다. 그가 죽을 무렵, 그는 아직 청년이었으나 그는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던 온갖 힘든 사역 때문이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요한복음 17:4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그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고 마침내 그를 죽였다. 우리는 다음과 과에서 그의 죽으심에 대해 배울 것이다

질문

1.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2. 사도들은 누구였는가?
3. 예수는 어떤 이유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는가?
4. 예수는 30세가 되자 무엇을 하였는가?
5. 기적은 어떤 것들인가?
6. 비유는 어떤 것들인가?